



‘동기둥~’ 생명의 소리...천지 울릴 듯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전통 국악기 제작 '脈 잇기 50년' 거문고, 가야금, 아쟁, 해금, 양금... 공연장에서 연주되는 그의 악기는 더없이 아름다운 생명의 소리를 만들어낸다. 문화재 작업에도 분업화가 이뤄지고 있는 요즘이지만 현, 안죽 하나하나도 최씨의 손길로 완성한다. 오늘도 대패질에 여념없는 최씨의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에선 장인의 숨결이 배어난다. 자신 뿐만 아니라 후세에까지 전통문화를 남기고 싶은 그의 소망은 많은 제자를 키우고, 아이들이 국악과 친근해지는 것이다.



사진/강종민기자 ppkjm@kgib.co.kr

경기도 무형문화재를 찾아서 <5>

제30호 악기장 최태진씨

최 고 브랜드의 고가 제품을 '명품'이라고 한다. 요즘은 물질만능을 넘어 물질지상주의를 달리는 시대다. 외국 유명 브랜드가 붙은 수제품은 고가에도 불구하고, '명품족'이란 신조어가 등장해 무작정 구입하는 세대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유럽 장인들 못지 않게 우리의 장인들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통문화를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전통 국악기의 맥은 시대를 넘어 지금까지 장인의 숨결을 간직한 명품이다. 거문고나 가야금, 아쟁 등 현악기를 전문으로 만드는 경기도무형문화재 제30호 악기장(樂器匠) 최태진씨(64·용인시 기흥읍 보라리)의 국악기들은 줄을 튕기면 '동기둥~' 생명의 소리가 천지를 울릴 것 같은 이 시대의 명품이다. 용인 한국민속촌 인근에 위치한 최태진씨의 집에 들어서면 몇년째 말리고 있는 현악기의 재목들이 즐비하게 널려 있다. 이어 집 뒷뜰에 마련한 작업장과 목재를 재워둔 창고가 한눈에 들어온다. 옷관과 밀판을 결합한 나무를 대패질 하느라 여념 없는 최씨의 이마에는 장인의 구슬땀이 조용히 피어나 있다.

거문고·가야금 등 10여종 현악기 제작

전통악기 50년 고집...개량형 악기 '사절'

최씨는 줄로 튕 악기라면 무엇이든 만든다. 거문고 가야금은 물론 아쟁·해금·양금 등 10여가지 이상이다. 그러나 줄이 25개나 되는 가야금 등 개량형 악기는 만들지 않는다. 피아노 등 서양악기와는 합주를 위해 만드는 이들 개량 국악기는 제맛이 안난다는 것이 최씨의 얘기. "전통악기는 한 번 줄을 튕기면 서너가지 소리를 낼 수 있는 농연의 맛이 있는데, 개량 악기는 이같은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줄 가야금 등 전통악기만을 고집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변화도 중요하지만 전통문화의 특색을 고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대목. 최씨가 전통악기와 인연을 맺은 것은 6·25전쟁때 함께 거주한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이었던 고모부 김광주씨(작고) 때문이다. 광복후 전국에서 가야금과 거문고를 제작할 수 있는 사람이 김광주씨를 포함해 두 사람 뿐이었을 만큼 장인도 적었지만 당시 최고의 장인으로 손꼽혔다. 김광주씨의 아버지 김명철씨도 전주를 기반으로 활동했던 당대의 이름난 악기장이었다. 집안에 있는 대패 등 목공기구를 이용해 나무같이나 총을 끈질기게 만들었던 최씨는 손재주가 좋아 진품과 똑같이 만들어 동네에서 인기가 최고였다고 한다. 최씨는 어깨 너머로 김광주씨의 제작기법을 익혔고 14세때

부터 본격적인 악기제작에 몰두했다. 전주 출신인 최씨는 이후 김광주씨와 함께 6·25전쟁으로 소실된 국립국악원의 악기를 제작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했다. 국악원내 공방을 차렸으며, 이후 국악원은 물론 추계예술대학, 단국대학 등에 납품을 했다. 현재 최씨가 제작한 가야금과 거문고는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보관돼 있을 만큼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렸으며, 국악전시회나 전승공예대전에도 출품해 호평을 받았다. 최씨는 1982년 한미수교 100주년을 기념해 미국에서 전통악기 제작시범을 보였는데, 이를 지켜본 한국민속촌 관계자의 요청으로 용인의 민속촌에서 1여년간 시연을 선보였다. 이를 계기로 용인 신갈에 터를 잡아 지금까지 제작과 전수교육을 하고 있다.

故 중요무형문화재 김광주씨가 고모부

14살때 시작...제작기법 20년 전수받아

1960년대 당시 한손으로 품던 악기장이 지금은 전국에서 100여명이 전통악기를 제작하고 있다. 최씨가 배출한 제자들이 기술을 연마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그러나 문화재였던 고모부 김광주씨의 기술을 20여년 동안 전수받았지만, 최씨가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1999년이다. 또 자신의 제작이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올라 있다. "문화재가 그렇게 중요한 지는 모르겠고, 욕심없이 제 일을 하면 되는거죠" "남들이 뭐라고 하면 내 제작이 중요무형문화재라고 자랑하면 그 뿐입니다" 문화재가 되기까지 주변의 권유도 많았지만 정작 자신의 제작자들이 어떤 선생에게 배웠는 지가 중요한 세상이 되고 보니 제자들을 위해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더 큰 이유다. 50여년간 전통악기에 매진한 최씨의 보람은 소박하다. "별다른 욕심은 없습니다. 정성을 드려 제작한 악기가 멋진 소리로 완성됐을 때 기쁨 뿐이죠" 최씨의 명성만큼이나 명망있는 연주자들이 최씨의 작품으로 연주를 하고 있다. "국악 공연장에서 제가 만든 악기의 소리가 잘 날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최씨가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은 1970년대 까니조차 해결하지 못했던 국악인들이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중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게 악기 제작 보람을 느낀다. "최씨의 목재 저장창고와 집 주변에는 진을 빼기 위해 늘어놓은 나무들이 별 좋은 곳은 모조리 차지했다. 혼자서 몇 십년을 작업해도 남을 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료를 구입한데는 이유가 있다. "안사람은 평생할 것도 아닌데 왜 이리도 많이 구입하냐고 지칭구를 놓기도 해요. 그런데 오통나무는 진이 잘빠져야 소리가 잘 나요. 그래서 몇 년동안 말려두는데, 제자들이 제작하려면 그만큼 연수가 지난 재료가 있어야 하잖아요" 자신 뿐 아니라 후세까지 전통문화를 전수하려는 장인의 면모가 느껴진다. 취재를 하는 동안 연신 방해를 놓는 6살 손주의 재롱을 받아주는 최씨의 환한 표정을 보며, 앞으로의 소망을 물었다.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통악기의 맥을 잇고자 하는 제자들을 키우고 싶고, 어린이들이 국악 공연장에 많이 와서 국악과 친근한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를 제공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최태진씨는 악기장 중에서 줄로 튕 악기를 만든다. 가야금 거문고 등 현악기들은 오통나무와 밤나무를 주로 쓴다. 요즘은 수입나무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소리의 깊이와 내구성이 떨어져 최씨는 절대사절이다. 가야금과 거문고의 몸통에 해당하는 울림통은 오통나무로 만든다. 최고의 오통나무는 돌 위에서 고생스럽게 자란 것으로 100년 이상의 것. 지역도 호남 것이 제일 좋고 다음이 동해 근처에서 자란 것이 좋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옷관을 짜는 기술이다. 전통적인 제작법은 통나무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등글게 깎아서 옷관을 만든다. 옷관의 두께는 정해진 계산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나무의 재질, 수명에 따라 맞추어 짤다. 이것이 바로 장인의 오랜 경험과 감각으로 두께를 조절하는 신묘한 기술. "짜는 기술을 책에 옮길 수도 없지요" "같은 오통나무라도 자라난 환경에 따라 강한 것과 무른 것이 있어서 재질에 따라 짜는 감각적인 기술이 악기의 소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죠" 밀판은 밤나무로 만들어 옷관과 붙인다. 옷통 위에 현을 고정시키는 틀을 현침 혹은 담패라 부르고, 줄을 걸치는 조각을 오리발을 달았다 해서 안죽이라 한다. 안죽은 가벼우면서 질긴 성질의 뽕나무를 사용한다. 그리고 현에 따라 명주실의 가닥수를 달리한다. 굵을수록 큰 소리를 내며 제일 굵은 줄은 60가닥이다. 꼼꼼한 최씨는 이 모든 것을 본인이 손수 제작한다. 문화재 작업에도 분업화가 이뤄지는 요즘, 현이나 안죽 등을 외부에 맡기는 경우도 많지만 최씨는 안죽 하나하나 손수 짤는 수작업을 통해 악기를 완성한다.

"정성들이 악기...멋진소리 완성때 기쁨"

"전통악기 脈 이을 제작 양성에 힘쓸터"

많은 국악인들의 생명과 같은 악기를 제작하는 최씨는 술하에 3남매를 두었다. 둘째 형욱씨가 남원국립국악원에서 거문고 연주자로 활동하며, 미술을 전공한 정욱씨가 아버지의 대를 잇겠다고 함께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건강이 좋지 않아 잠시 다른 일을 하고 있다. 또한 동생 태근씨가 30여년간 최씨와 함께 공방을 지키고 있다. 최씨의 목재 저장창고와 집 주변에는 진을 빼기 위해 늘어놓은 나무들이 별 좋은 곳은 모조리 차지했다. 혼자서 몇 십년을 작업해도 남을 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료를 구입한데는 이유가 있다. "안사람은 평생할 것도 아닌데 왜 이리도 많이 구입하냐고 지칭구를 놓기도 해요. 그런데 오통나무는 진이 잘빠져야 소리가 잘 나요. 그래서 몇 년동안 말려두는데, 제자들이 제작하려면 그만큼 연수가 지난 재료가 있어야 하잖아요" 자신 뿐 아니라 후세까지 전통문화를 전수하려는 장인의 면모가 느껴진다. 취재를 하는 동안 연신 방해를 놓는 6살 손주의 재롱을 받아주는 최씨의 환한 표정을 보며, 앞으로의 소망을 물었다.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통악기의 맥을 잇고자 하는 제자들을 키우고 싶고, 어린이들이 국악 공연장에 많이 와서 국악과 친근한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